

- 10월: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하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무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제,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지난호에 이어서)

이에 일곱째 천사는 즉각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한편으로 '사장이 되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원만히 돌아갈 수도 없고 회사에서 사업하는 모든 것이 정지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직원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해와이긴자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장이시니까 회사를 정리할 시간은 있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집에 들어가지 말고 회사에서 지내도록 하세요."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밀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남대문 영화빌딩 7층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날로 번창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들여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살아가나 보다' 하고 안도감이 마음속에서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등소평의 친구로 장관자리에 있던 분의 자제(子弟) 한 사람이 홍콩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원자재 개발권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우리나라 체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 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남대문 근처 다방에서 우연히 만난 일곱째 천사를 붙잡고 앉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관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광대한 원자재 개발을 맡아 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64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안 되지, 노력을 하긴 뭐해!”**

에 얽다며 조르기에 일곱째 천사는 할 수 없이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자 재계의 거물들이 돈은 얼마든지 대주겠으니 동업을 하자고 추파를 보내왔습니다. 조그만 회사 사장이 졸지에 동양 일대의 갑부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은복 선생을 통해 알게 된 해와이긴자는 생활비를 대어줘야 사는 집인데도 연락도 하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회사에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오십이 되도록 고생만 하다가 겨우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경제적으로 살 만하니까, 숨 쉴 틈도 없이 "회사를 던져라, 재산을 던져라, 가정도 버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집에 좀 갔다 올게요"라는 말이 나올 만한데, 이 일곱째 천사는 그런 말을 해보지 않았고 집에 전화조차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꿈이 꾸어질 테니 그 꿈 끈 것을 노트에 적어 오시라.”**

회사의 주권을 부사장에게 넘겨주라는 해와이긴자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하였고 또 소유하고 있던 서너 채의 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등기이전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에 3만평의 땅과 나머지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제 이 몸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니, 이에 해와이긴자는 칭찬하기를 '너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조 사장님이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진 것 아닙니까?"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일곱째 천사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 오리털 침낭을 하나 사서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장이 퇴근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지내는 것을 알게 된 직원들은 안절부절못하여 밤마다 톱탕이며 감과 같은 야식을 사 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사무실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해와이긴자로부터 "안 되



밀실 입문 전 여관에서 과거를 생각할 수 없는 자유음법의 1차 관문을 통과하다

겠다. 회사에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니 거 가서 나와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딸린 집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잘 이겼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나오니까 해와이긴자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방을 하나 얻어 줄 테니까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망원동에 있는 모 여관에 데리고 와서는 209호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와이긴자가 덧붙여서 말하기를, "오늘부터 꿈이 꾸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전 꿈을 꿰 보지 않았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꾸어지니까 두고 봐! 오늘부터 꿈이 꾸어져요."라고 하시면서 그 꿈 끈 것을 노트에 다 적어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녹음기와 간단한 생활필수품을 챙겨서 제일 조용한 2층 끝 침대가 놓여 있는 방에 일실하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잠을 자는데 초저녁부터 웬 꿈이 꾸어지지는 별의별 꿈이 다 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 끈 것을 다 적어 가지고 가니까 그걸 읽어보라고 하시기에 꿈 노트를 펴고 읽어드리니까, 즉석에서 "어제 아침잠은 이리이러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이리이러한 생각이 있었군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없이 어제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니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해와이긴자에게 그 날그날의 꿈풀이를 받으러 나가는 일 외에 하루종일 방 안에서 영모님의 말씀을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기도생활을 하였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

일곱째 천사가 생각한 것이 전부 꿈으로 나타나는데, 해와이긴자는 거기에서 가르쳐주시기를 "과거를 생각하셨구먼요.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는 것이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전도관에서도 들었던 적이 없는 말씀이었는데, 이는 참으로 다섯째 천사 영모님의 수준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자유음법이었던 것입니다. 묵시록에 다섯째 인을 때는 자가 해와이긴자이기에 당연히 다섯째 천사보다 여섯째 천사가 더 높은 영적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앞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에 과거를 생각하는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는 게 나타나니까, 꿈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아담만 맞은 것입니다.

"예,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쩌합니까?"

“노력을 안 했으니까 안 되지, 노력을 하긴 뭐해!”

이렇게 해와이긴자라는 하늘의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심령이 어린 일곱째 천사와 마주 대할 때 항상 공대말로 대하다가도 이유를 댈때까지 변명하는 말을 듣게 되면 반말 투로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그냥 또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뒤 돌아보는 음란죄를 짓었다고 지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또 노력을 하니까 이삼일에 한번 꼴로 과거를 생각하는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리고 이후 계속해서 노력하여 20일 만에 과거를 생각하려 할 수 없는 단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밀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기는 테스트 과정을 치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담 이긴자 후보자인 일곱째 천사가 여관에 들어간 후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면서 옆방에서는 매일 밤마다 간통을 하는지 아니면 강간하는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불의라던 눈곱만치도 허용하지 않은 성품이라 당장 뛰어나가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으나 다른 일에는 일체 관심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해와이긴자의 엄명이 있었던고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가까스로 그 순간을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 꿈 끈 것을 적어 가지고 가니 아니나 다를까 해와이긴자께서는 "참견하는 관심의 음란죄"를 짓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이제는 밖에서 세상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어제보다 더 요란스럽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니어합판을 두 겹으로 막은 벽사이로 온갖 신음소리가 귀를 찌를 듯이 들려왔으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으로 영모님 얼굴을 새기며 귀로는 영모님 설교 테이프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의 음란죄에 걸려 넘어가려는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해와이긴자에게 갔더니 "어제는 겨우 이기셨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도 계속 간음사건이 일어났으나 점점 확실하게 이겨나가기 10여 일간 계속되던 간음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들끓던 여관에 손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손님이 없자 여관 주인은 무당을 불러 그 원인을 물어보니 무당은 209호실 손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관 주인은 도대체 209호실 손님이 하루종일 밖에 나가지도 않고 뭘 하나 하고 문틈으로 방안의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안에는 녹음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일곱째 천사가 리시버를 귀에 꽂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간첩인 것 같다고 하여 정보부에 신고하였습니다.

하루는 정보부원 두 명이 일곱째 천사를 찾아와서는 방안을 살피기 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곱째 천사의 꿈풀이 노트에 적힌 내용 중 북괴군이 남침한다는 등의 글귀를 보고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으나 단순히 꿈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 육군장교로서의 전력 등을 확인하고는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의 신고로 오게 되었다고 슬쩍 귀띔해주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여관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승승장구로 마귀와의 싸움, 즉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해와이긴자께서는 차를 가지고 와서는 짐을 챙기고 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를 태운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이 일곱째 천사가 수십 년간 연단생활을 해온 소사신앙촌의 오만제단 가는 옆길로 해서 소위 '밀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의 마지막 연단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중국의 원자재 개발권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갔으면 이긴자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지 못할 것은 뻔했습니다.\*

박한수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説) <41>**

**일체동관분(一切同觀分) 第十八**

(지난호에 이어서)

불성을 회복하여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없애므로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 중생들이 번뇌를 끊었다고 하면 불도를 이루었던 부처였었다는 이야기가 되며, '부처'라 함은 만물이 하나로 되는 것이므로 과거에 중생들이 사실은 한 몸으로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보기에도 우주는 셈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분열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여기 지구 땅에도 동물과 식물 그리고 각종 물질로서 꼭 차 있는 형태로 분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는 결국 한 몸이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계속 금강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대목은 여래인 미륵부처님께 과연 인간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있

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기존의 불교계에서도 가끔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須菩提 於意云何 須菩提 於意云何**  
수보리 어의운하  
如恒河中所有沙 佛說是沙不  
여항하중소유사 불설사사부  
如是世尊 如來說是沙  
여시세존 여래설사사  
수보리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느냐?  
저 항하 가운데에는 모래가 있다고 여래(석존)가 말씀하시더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모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須菩提 於意云何 須菩提 於意云何**  
如一恒河中所有沙 有如是沙等恒河  
여일항하중소유사 유여시사등항하  
是諸恒河所有沙數佛世界 如是寧為多不  
시제항하소유사수불세계 여시영다부  
**甚多世尊 甚다세존**

수보리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느냐?  
저 한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 (수와) 같이 모래 수들의 항하가 있고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 수의 부처님의 세계가 이와 같다면 많다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니다. 세존이시여!

**佛告須菩提 佛告須菩提 佛告須菩提**  
이소국토중소유중생약간중심여래설지  
**何以故 如來說諸心 皆為非心 是名為心**  
하이고 여래설제심 개유비심 시영위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저 나라 가운데 모든 중생의 가려진 마음을 여래(법신불)는 모두 아느니라. 왜냐하면, 여래(석존)가 말씀한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는 것이다.

[해석] 그렇습니다. 미륵여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계시지만 한순간에 시방의 삼천大千세계의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진히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여기서 석존은 자신은 부처가 아니기에 진실한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고 진실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며, 이런 이치로 석존 스스로 부처의 마음이 아닌 범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者何 須菩提 所以者何 須菩提 所以者何 須菩提**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석] 그러나 석존은 스스로도 밝힌 것과 같이 법신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삼세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부처님의 마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음을 감히 어찌 범부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즉 지금 세상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열 길 물속의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했듯이 부처님(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존재가 아니면 아무도 그 마음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찌 삼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음에 잡아 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가 과연 눈(眼)이 있느냐는 부

분인데 이 눈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으므로 해안(慧眼)으로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곧 이 부분은 석존의 눈을 논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미래의 법신불로 오실 미륵부처님에 대해 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의 끝부분이 부처의 상징인 법안(法眼)과 불안(佛眼)은 논하였으므로 당연히 법신불이 아닌 석존의 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明鍾